

교통약자 이동욕구 및 정책수요의 성별차이와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교통약자 이동욕구 및
정책수요의 성별차이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마 경 희 연구위원

Tel: 02-3156-7267, e-mail: mkhee@kwdimail.re.kr

요 약

이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수요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정책 의제를 도출함. 아울러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서 성별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

1. 배경 및 문제점

-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시행 이후 버스,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여객시설, 도로, 보행환경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제약해 왔던 물리적 환경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음.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집 밖 외출도 상당히 증가했음
-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은 교통약자가 직면하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에

-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남성과 달리 여성 교통약자가 처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교통약자의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장애가 있고, 물리적 장벽이 이동을 제약하는 중심적 요인이라 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이동욕구와 정책수요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장애여성은 남성과 달리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한 사회적 장벽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며, 이로 인해 외출활동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노인은 노후의 질병과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욕구와 행태에서의 성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조사 및 분석결과

- 대중교통 이용행태의 성별차이
 - 장애여성과 노인은 자가운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버스를 많이 이용하며, 이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사고경험이 많음
 - 여성, 특히 노인여성은 대중교통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낮아 지하철과 버스 이용시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함
-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한 성별 차이
 -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교통비 지출 규모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장애여성과 노인여성은 남성보다 교통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장애인과 노인 모두 비교통약자보다 취업활동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집단 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취업활동을 덜 하고 소득수준도 낮기 때문임

- 여성노인은 남성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신경통, 요통 등 이동에 직접적 제약이 되는 질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킴
- 장애여성은 택시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운전기사 등 교통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쾌함과 모욕감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함. 이러한 불쾌한 경험은 이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더라도 심리적 불편을 주는 요인이 됨
- 여성의 특수한 욕구와 사회적 역할로 인한 성별 차이
 - 장애여성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택시기사 또는 특별교통서비스 기사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함
 - 자녀에 대한 양육과 돌봄 책임은 부모 공동의 몫이지만 대체로 어린 자녀는 여성들이 돌보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함. 여성들은 자가운전 능력이 남성보다 낮아 자녀와 이동시 자가용을 덜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3. 정책제언

제안1) 교통약자 버스 이용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제도 도입

- 낮은 자가용 이용률로 인해 여성의 수요가 많고,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여성의 부담이 큰 버스 이용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제도를 도입함
- 현재 장애인에 한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권유하는 법안(「장애인복지법」)이 2009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인 교통약자까지 포괄하여 버스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제안2) 지하철 승강기 확장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여성노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장애인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1역사에 1개 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현재 승강기의 수용인원 확대 등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더불어 저상버스의 확대 설치는 휠체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노인여성의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임

제안3)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의 내실화

-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가 실시하도록 함. 이 때 필수적으로 장애여성이 종사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제안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여성의 이동 환경 보장

- 택시기사와 장애인콜택시 기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함. 또한 성희롱 신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인적이 드문 시간과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 감소를 위해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함

제안5) 자녀동반 장애인 부모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지원

- 현재 1-2급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자격을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로 확대함

제안6) 여성의 욕구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별도의 주기적 조사 실시

-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 성희롱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이동제약에 미치는 효과, 나아가 정책적 대응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함
- 장애인 부모의 자녀동반 이동 실태 조사도 필요함. 자녀동반 이동과 관련된 이동욕구와 정책수요는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동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

4. 기대효과

- 남성에 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동장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여성 교통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증진하여 사회적 관제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인권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임
- 2007년부터 실시된 「제1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2011년도에 종료되고 2012년도부터 2차계획이 시작됨. 이 연구는 교통약자 내부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2차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